

## 재난의 일상화와 이주민, 그리고 통번역

오유현(호모인테르<sup>1</sup> 공동대표)

### '재난의 일상화'란 표현이 일상이 된 요즘...

강남 구룡마을 화재, 안산 선부동 빌라 화재사고, 강릉 산불,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경북 예천 산사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캐나다 산불, 하와이 산불, 모로코 지진, 리비아 대홍수 등 국내외 커다란 재난들만을 떠올려도 2023년의 주요 사건들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9년 한반도 최다 태풍 발생(7건), 2020년 최장기간 장마(54일), 2022년 8월 최고 강우강도(시간당 141.5mm), 지난 7월 14일 지역별 일 최대 강우량(483mm) 등 최근 5년간 모든 강우 기록이 경신됐다.<sup>2</sup> 산불 관련해서도 작년 동해안 산불의 경우 213시간 43분만에 진화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되었듯이 그 강도 역시 점차로 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연구원 부산시탄소중립지원센터에 따르면, 2012~21년 자연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한 수를 취합한 결과 부산에서 27명(84명 중)으로 조사되면서, 국내 7대 대도시 중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풍, 폭풍 해일 등 해안 재난의 위험이 크며, 특히나 최근 30년간 해수면 상승률도 빨라지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 예상된다.<sup>3</sup>

---

<sup>1</sup> <호모인테르>는 2018년 창설되어 2019년 서울시 NPO 비영리스타트업 3기로 활동을 시작한 후 그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난민 이주민을 위한 통역과 심리사회지원을 수행해 온 비영리단체임.

<sup>2</sup> 정창삼, "Part 02. 2023년 수해현황 및 대책", 위터저널, 2023년 9월 5일자.

<sup>3</sup> 서유리, "부산, 7대 도시 중 자연 재난 피해 최고...9년간 사망·실종자만 무려 27명", 부산일보, 2023년 3월 9일자.

게다가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사회재난<sup>4</sup>의 위험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재난의 일상화'란 표현이 일상화가 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요즘이다.

## 재난 현장에서 만난 이주민...

재난 시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재난 현장을 다니며, 직접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하거나 재난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올해만도, 강릉 산불, 안산 선부동 화재 사고, 공주 수해, 예천 수해 현장을 다니고 있다.

지난 7월 공주의 수해 현장을 다녀왔다. 수마가 활궤고 간 도시의 피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특히 피해가 컸던 지역을 다니던 중, 서울로 올라오기 직전 한 빌라의 입구에서 추리닝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외국인 노동자를 먼발치에서 바라보았다. 당시 지역을 안내해주던 아동쉼터의 센터장은 그 빌라에 다수로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다른 재난 현장이었던 강릉 산불의 경우 최종 보고된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이며 그 부상자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민이다. 이렇듯 당연하지만 재난 현장에서도 예외없이 이주민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재난 발생 시 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재난 이전과 이후 모두 예방과 대응 차원으로 정보와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한 소통의 측면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 언어와 정보접근의 제한으로 재난 시 더욱 높아지는 취약성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던 코로나19를 떠올려보자. 재난 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듯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에서 역시 다양한 유언비어들이 함께 확산되며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더욱 중요할 터인데 이주민의 경우 예방수칙, 방역정책, 지원정책에 있어 제한된 언어로만 전달이 되었다. 특히나 백신접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백신접종 사전에

---

<sup>4</sup>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홍수·호우와 같은 것을 자연재난, 그리고 화재·붕괴·폭발 등을 사회재난으로 구분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약 시스템은 한국어로만 운용되었다. 접종 예약 후 발송되는 안내문자, 이상반응과 건강상태 확인 문자도 모두 한국어로만 전송되었다. 접종 예약은 보건소와 구군별 콜센터에 전화로도 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들은 본인들이 직접 예약을 할 수 없었다.<sup>5</sup>

14개국 26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 15명의 부상자 및 현장에 있었던 이주민과 피해를 입은 이들이 속한 커뮤니티, 다수의 이주민들이 오가고 거주하는 이태원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자면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 보건복지부의 통합심리지원단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포함 심리지원 서비스를 안내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외국인 대상 전문가 상담을 신청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온라인 사이트 양식은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물론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최초 위기상담에 대한 접근성은 높힐 수 있지만,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고, 심리지원에 있어 트라우마를 겪은 내담자를 위한 통역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이해 그리고 실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트라우마를 겪은 이주민에게 심리상담 10회기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이러한 상담 서비스 제공 전 준비를 위하여, 호모인테르에서는 상담에 투입될 통역인들에게 <트라우마 내담자 상담을 위한 통역>이라는 교육과 <정신건강상담 통역 시 고려해야 할 실천적 가이드><sup>6</sup>를 제작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고령자, 영유아, 이주민 등과 같이 '올바른 상황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재난약자라고 부른다.<sup>7</sup> 이주민의 경우 한국어 이해력에 따른 정보 접근과 수집의 어려움, 이로 인한 상황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에 재난 상황과 이후의 지원에 있어 다른 재난약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약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2014년 기준) 외국인 재해율이 전체 0.5%에 비해 0.91%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발표하였고<sup>8</sup>, 앞선 실례를 통해서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sup>5</sup> 2022년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코로나19가 남긴 교훈 :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이한숙 소장의 토론글을 통해 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sup>6</sup> 호모인테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협력으로 제작하였음: <https://www.youtube.com/watch?v=glppatljgg8>

<sup>7</sup>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전국재해구조협회 희망브리지, 2017)

<sup>8</sup>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환경 이주와 "다문화 방재": 경주·포항 지진 이후 '공존'의 물음과 실천적 과제 (민지원, 2018)

## **‘재난의 일상화’의 시대에 언어 제한의 감소와 정보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점차로 다양한 재난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며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 특히 이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번역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우선 이주민들의 재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실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지역 언론들을 통해 최근,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외국인 재난안전 교육 실시가 기사화 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또한 (사)더프라미스, 호모인테르, 한국아웃도어안전연구소가 함께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통합적 재난 대응교육’에 총 4백여명(전국 총 10개의 이주민지원 기관)이 참여하였는데, 가족단위를 주로 하여 진행된 이 교육에서 사전에 재난교육을 받아본 성인 참여자의 수는 지극히 적었다. 학교 안전교육을 통해 오히려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들이 행동요령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에 자녀들이 부모를 챙겨야 하는 상황을 교육 간에 볼 수 있었다.

교육의 콘텐츠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해보자면, 기존의 재난안전교육은 물리적 대응에만 주로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포함 여러 재난의 경험들을 통해 심리적 측면에 대한 내용 역시 다루어져야 함이 분명하기에 ‘통합적인’ 재난대응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예방적 차원의 이러한 재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 통번역인의 양성이 함께 가야 한다.** 실제로 이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주민 지원 기관의 ‘통번역인’과 ‘활동가’들에 대한 사전 워크숍이었다. 프로그램 자체의 진행을 위해 통번역인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단지 프로그램을 넘어서 장기적인 지역사회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일 것이다.

정보접근성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 안정 그리고 일상의 회복이라는 재난 시 주요 대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바로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와 같이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허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재난대응역량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이 바로 1차적인 대응이듯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의 주요 인력인 통번역인과 활동가들이 재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재난대응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이해는 문화 및 분야적합성을 고려한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라는 기관의 주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나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문화적,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없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심리적인 지원을 위한 통번역인들의 준비를 강조**하고자 한다. 상술하였듯이 재난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은 분명하고, 그 후유증은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실제로 재난 이후 증가하는 현상 중 하나는 자살과 중독이고, 이에 대해서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통역을 통한 심리적인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는 경우, 특히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연계활동을 하는 경우 통번역인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사례 분석이나 링크에서 최근 계속 해오는 <통번역 활동가 마음 건강 워크숍>도 동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 시 가장 커다란 대응 효과를 가져오며 필수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바로 평상시 안전의 연결망 구축과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대응 관련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부산대학교 병원, 부산시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링크의 역사는 커다란 자산이 아닐 수 없다.

토론을 위한 제언을 마치며, 상술한 바와 같이 재난약자의 한 그룹으로 이주민이 해당되며, 재난으로 인한 취약성은 더욱 커져간다.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과 회복에 있어 중요한 과정은 피해자가 재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대응이나 조절 능력에 대해 다시금 환기하며 내외적 '연결'하는 과정이다. 재난 시 '이주민'으로서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하는 언어 장벽과 같은 '상황적 취약성'을 낮추고, 회복을 위한 '연결자'로서의 통번역인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재난의 일상화 시대에 지난 10년 부단한 노력을 해온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에 커다란 지지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또다른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한다.